

산업유산 아카이빙을 위한 개인 생애서사 기반 수집 연구

A Study on the Collection Based on Personal History for the Archiving of
Industrial Heritage

류한조(Ryu, Hanjo)*

1. 서론
2. 사회적 기억과 산업유산
 - 1) 사회적 기억 저장소로서의 산업유산
 - 2) 산업유산의 사회적 의미 구조
3. 개인 서사기반 산업유산 아카이빙 방안
 - 1) 장소의 구조를 반영한 경계설정과 아카이빙 실행
 - 2) 개인 생애서사와 장소성의 연결
4. 결론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kalistland@gmail.com).

■ 투고일: 2020년 09월 19일 ■ 최초심사일: 2020년 10월 05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10월 22일

■ 기록학연구 66, 37-67,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6.037>

〈초록〉

최근 산업유산은 도시재생 바람을 타고 문화시설로 변형되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외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설명 역시 거대서사로 축약된 경우가 많으며, 장소성은 충분히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유산이 가진 장소성은 역사적 기억 뿐 아니라 개인의 기억을 포함하고 있다. 정체성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장소성이 보존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소 기억이 수집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개인의 생애서사를 중심으로 장소기억을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동역과 청주연초제조창 수집사례를 이용하여 생애서사를 사건으로 분해하였으며, 이를 장소기억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유산 장소 아카이빙 실행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사회적 기억, 산업 유산, 개인 기록, 사건 아카이빙, 장소성, 장소 아카이빙, 서사 수집

〈Abstract〉

Recently, industrial heritag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cultural facilities in the wake of urban Regeneration. This focus is mainly on appearance, and the explanation is often abbreviated as a master narrative, and the placeness is not sufficiently inherited. The placeness of industrial heritage contains not only historical but also personal memories. Place memory must be collected and managed in order for the placeness that can be the source of identity to be preserved and utilized.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ed collecting place memories based on personal life histories. Using the case of collecting Andong Station and Cheongju Tobacco Factory, the life narrative was broken down into an event and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it as a place memory was proposed to implement archiving of industrial heritage

sites. This methodology means that it can be supplemented rather than replaced.

Keywords : Social Memories, Industrial Heritage, Personal Records, Event Archiving, Placeness, Place Archiving, Narrative documentation

1. 서론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났다. 산업구조 변화와 도시개발촉 이동은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를 사실상 방 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중 산업시설은 간헐적으로 문화공간으로의 개 발 혹은 상업적 활성화 시도가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대상이 가진 장소성이 나 지역정체성을 활용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전통적인 건축문화재에 비 해 산업시설과 같은 근현대 이후 건축된 건물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관심 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볼 수 있다

도시의 변화에 따라 쇠퇴하는 시설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그러나 특정 시설이 당시 산업활동의 보편성을 보여주거나 미학적 가 치 및 사회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근대 시설과 같이 유산으로 간주 하여 보존해야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산업시설에 대해 이른바 산업유산으로 간주하고 미래세대 에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박재민, 서종상 2012, 65).

이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오래된 건물을 과거의 외형 을 살려 카페 등 상업시설로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노후 건조물 등을 보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미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노포나 제조시설 등의 보존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과거 석유비축용도로 사용하던 안보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2017년 문화비축기지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다(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2020.6.16.).

그럼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레트로 열풍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문화시설로 변형된 산업유산들은 장소가 가진 의미나 기억에 대해 주목받기보다 상대적으로 독특한 외형으로 소비되는 경향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장소에 담긴 기억이나 의미를 활용하기보다 도시 미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 산업유산의 활용은 단편적 관광자원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해관계자인 주민은 타당한 방식을 고민할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보존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진중헌 2012, 298).

근본적으로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재생에 대한 시도는 장소성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어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산업유산을 활용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유산에 저장된 개인과 집단의 기억을 저장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공간에 대한 활용과 더불어 아카이빙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특정 건축물과 같이 건조물에 대한 아카이빙은 간간히 시도되어 왔으나 표준화된 방법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치를 인식한 특정 대상에 대한 기록화 작업은 시작부터 기준이나 범위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유명한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대한 비판지점 역시 과거의 형성자(Shaper)가 된 아키비스트들이 특정 주제를 포착하는데 있어 불분명하게 범위를 설정하였다는 부분이었다. 기록화 전략의 목표는 정체성이나 역사적 가치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합의를 도출해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설문원 2010, 25-26). 대안으로 지역정체성 기록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평가하여 기록화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설문원 2012, 439).

다른 차원에서 아카이빙 대상을 도시나 특정 장소로 설정하여 기억과 장

소성을 중심으로 기록화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도시를 기록화하는 방식으로 도시공간 내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사고와 몇몇 주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억을 공간 베이스로 정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정유진 2018). 다른 방식의 연구에서는 철도역이라는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사진을 이용하여 내재가치와 물리적 대상, 관련 행사와 사건 등을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화시키려는 시도도 존재했다(김정현 2011). 이밖에도 건축물의 외형과 구조를 중심으로 기록화하는 방식의 시도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문헌조사, 실측, 도면, 사진, 영상촬영 등의 과정을 거쳐 시각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고착화되어 있기도 하다(하승용, 이정수 2017, 446).

산업유산은 아카이빙 대상으로서 물리적 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경관적 가치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기억의 장소가 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국내의 산업 발달 역사는 산업유산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축적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산업유산은 곧 개개인의 기억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동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산업유산은 대체로 고정된 장소에 물성을 지닌다는 특성을 가진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장소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록화라는 측면에서도 장소 기억과 연결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기존에 논의되던 일반적인 경관 아카이빙의 접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대상을 선정하여 역사와 구조, 정체성, 변화상, 생활에서의 모습 등에 대한 기록화가 자연스럽게 수반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하승용 2019, 31). 즉, 경관 아카이빙은 기록화 영역설정을 통해 기록화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산업유산 아카이빙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유산은 경관이라는 차원보다 노동과 일상이라는 차원에서 경관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산업유산은 누군가의 일터이자 삶의 일부이었으며, 이에 대한 개개인들의 경험은 장소기억의 일부로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이라는 유형 내에서 건조물에 대한 개인서사 기반의 아카이빙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개개인이 가진 자기역사 속에서 개별 산업유산이 어떠한 개별 사건과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거대담론과 외관에 집중된 기존의 일반적인 경관 기록화 방법론에 다양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 본 연구는 안동역과 청주 연초제조창을 선정하여 사례로 적용하였다. 안동역은 철도라는 근대 인프라 산업지원시설의 대표 시설인 기차역은 노동자의 삶과 이동의 중심지인 지역민의 일상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강동진, 장주은 2011, 106). 또한 연초제조창은 산업의 특성 상 노동집약적이면서도 농업 및 유통업 등 관련분야가 넓은 점에서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산업유산은 경관의 예술적 가치보다 장소에 쌓인 기억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유산과 같은 건조물을 물리적인 재질과 구조 등으로 접근하여 아카이빙해서 가치있는 재현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많은 이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기억은 아카이빙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서사 속 사건을 토대로 한 아카이빙을 제시하였다.

2. 사회적 기억과 산업유산

1) 사회적 기억 저장소로서의 산업유산

산업유산은 장소성이 중요한 가치 요소로 평가받는다. 산업유산이란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미학적, 교육·학술적,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산업문화의 유산을 의미한다(박재민 2013, 58).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유산이 주로 해당되며, 공장·광

산·역사(驛舍)·제철소·발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개념과 범주에 있어 다소의 논쟁이 있지만 2003년 국제기념물유적보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의 니즈니 타길 헌장(Nizhny Tagil Charter)에 의해 대략적 합의를 도출하였다(박재민, 성종상 2012, 66).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후기,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70~80년대 유산이 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박재민, 성종상 2012, 77).

일반적으로 장소는 공간에 의미가 부여되었을 때 발생한다. 장소성은 체험 등을 통해 장소와 관련된 의미나 장소정신이 사회적인 의식으로 승화되었을 때 발생한다(에드워드 켈프, 2005). 공간은 인간의 인식을 통해 생산되고, 장소는 의식과 기억을 통해 의미가 부여되고 유지된다. 때문에 공간에 비해 장소는 경계와 영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제프 말파스 2014, 48). 이러한 관점에서 일터이자 생산수단으로서 지역에 밀착되어 있던 산업유산은 장소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다.

산업유산은 노동과 생산수단과 연결되어 있기에 삶에 대한 다양한 기억을 환기시킨다.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른 등장과 쇠퇴는 지역의 로컬리티를 변화시킬 만큼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날 과거 방직공장이나 광산과 같은 산업유산은 이미 생산수단이 아닌 과거의 유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수는 에코뮤지엄이라 이름으로 활용되는 등 원래의 용도 대신 관광자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유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소감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게 만들 수 있다. 개인의 기억은 자신의 정체성과 공통된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기억은 일정 부분 장소에 저장되고 있으며 장소와 격리될 때 개인은 자아와 부분적으로 격리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제프 말파스 2014, 238). 개인은 장소에서 장소감을 느끼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서 장소성은 그 자체로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장소가 인간으로부터 정체성을 얻듯 인간도 장소로부터 정체성을 얻는다는 것이다.

기억은 그 자체로 과거를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의미있게 만들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활용된다(태지호 2014, 2). 산업유산에 저장된 기억은 개인의 서사에도 의미를 지니지만 사회적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로 작동하기도 한다. 장소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을 넘어 장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은 알박스가 주장했던 집단기억 관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집단기억은 기억이라는 개인적인 작용을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태지호 2014, 24). 집단기억은 기억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기억도 사회적인 틀 안에서 상호작용되어 유지된다(조은영 2016, 35). 장소가 집단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이때의 장소 기억은 ‘물질로서의 장소가 축적하고 있는 기억들’, ‘물질로서의 장소 그 자체가 지닌 비물질적인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전종한 2009, 788).

물론 장소와 관련된 모든 기억이 집단기억으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일정 의미를 지닐 때 집단기억으로 정착되며 이는 개인이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김명훈 2014, 11). 기억 공동체를 생성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집단기억은 장소 등에 저장되어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상기된다. 산업유산이 국제적 합의에 의해 기념물이나 유적으로(Monuments and Sites) 간주되는 이유도 인류와 국가의 생산양식과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유산은 국가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신화와도 연결되어 있다. 즉, 산업유산은 노동 등으로 인해 관련된 주민의 사회적 기억을 축적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산업유산은 단순히 하나의 건축물을 넘어 기억이나 관습을 포함한 기록이자 문화재로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다(이병민 2017, 93). 우리나라의 산업유산은 특히 압축성장 혹은 고도성장으로 인한 ‘한강의 기적’을 영역별로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 등 세계적으로 산업사회를 주도했던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

인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시기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는 산업유산도 존재하는데, 이는 발전적인 역사 뿐만 아니라 교훈적 역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산업유산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 등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예술가나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그 경관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자원으로서 산업유산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는 낡고 훼손된 시설을 방치하여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가진다. 산업유산은 그 자체로 기록화하여 재현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과거 산업활동을 증명하는 기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산업유산을 하나의 기록으로 간주한다면 기록의 맥락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주변지역이나 관련사건, 관련인물과의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 자산이자 보호대상인 산업유산이 발전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맥락과 이야기가 포함된 방향성이 요구된다(이병민 2017, 113).

특히 건축물로서 경관적 가치가 보존된다 해도 내부시설과 기계, 설비와 같이 물리적인 구성물도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염미경 2010, 161). 산업유산이 사회적 기억 저장소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맥락이 충실히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소는 경관의 미적 가치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나 문화적 활용 과정에서 현실적 이유로 물리적 구성물이 유지되기는 쉽지 않다. 역설적으로 이는 산업유산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아카이빙 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산업유산에 어떠한 역사가 존재하였으며 어떠한 사회적 기억이 담겨있는지 별도로 아카이빙 되어야 물성으로 존재하는 산업유산과 결합하여 기억을 전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기억의 저장소로서의 산업유산은 의미가 고정된 채 유지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적 기억과 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장소성을 획득하면서 기억의 층위가 두터워지기도 한다.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기억으로 재생산되고 다시 관찰자를 통해 그 아우라가 전달되고

해석된다. 개인적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으로 존재하기보다 집단 기억과 상호간의 영향을 주면서 감각적으로 변화한다(박재민 2013, 37).

2) 산업유산의 사회적 의미 구조

산업유산의 의미는 관련된 사건이나 인물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도출된다. 노동자의 일터로, 주민들의 랜드마크로, 아이들의 놀이터로 산업유산은 규정되고 기억된다. 특히 산업유산은 지역 내 상대적으로 큰 규모와 상주 인구가 많은 이유로 주변 공간인식의 랜드마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유산과 관련된 기억들은 대체로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 의미화된다. 개인의 삶에서 겪은 작은 사건에서부터 여러 사람의 삶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 큰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기억들이 산업유산의 장소성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미는 특별한 섬광기억(flashbulb memory)과 관련된 사건이나 거대사사를 구성하는 사건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거대 사건을 중심으로 사회적 유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를 기억의 장소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유산과 관련한 일상적인 개개인의 삶은 배제되기 쉽다.

산업유산이 가지는 장소성은 특정 산업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이나 지역 및 국가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령 큰 항구나 광산은 국가적인 산업의 성장이나 변천을 보여주기에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구조의 변형이 국가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지역의 정체성이나 노동자의 삶은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 묘사된다.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의 삶은 산업공정상 채굴과정이 표현될 뿐 광산업이 몰락하면서 벌어지는 일상의 변화는 알기 어렵다.

노동은 산업유산에 대한 기억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 자체도 산업유산의 일부로 기억

되어야 하지만 별도의 노동운동사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만 기억되고 있다(윤현위, 문순희 2020, 120). 노동 뿐 아니라 산업유산은 지역의 명소로, 놀이터로, 이동수단 등 다양한 의미로 기억되곤 한다. 국가나 지역적 산업 발달이라는 관점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장소가 가진 장소성은 거대서사로 편입된 큰 사건만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거대서사의 장소성은 독립운동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신화가 된 집단 기억이 작동하고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보다 학습된 기억이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역할을 하며, 사회적 기억을 재생산시키는 국가적 의식이 동원되기도 한다. 반대로 개인의 주관적 기억 역시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장소와 떨어질 수 없으며 장소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곤 한다(제프 말파스 2014, 230). 장소성은 다른 공간, 즉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인지하면서 자신을 자각하면서 부여되기 때문이다(배운호 201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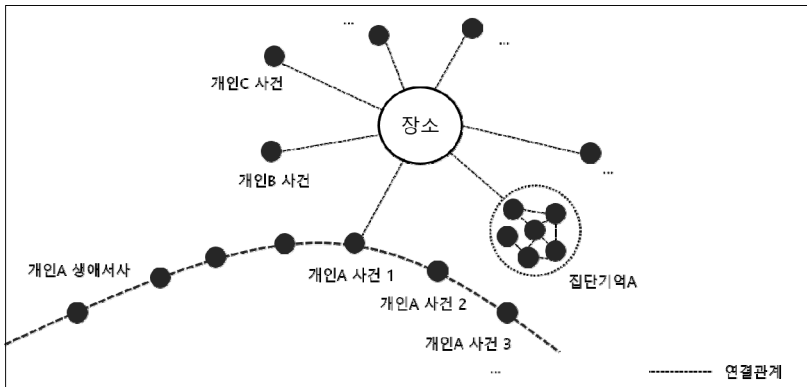
따라서 장소성은 개인의 주관성, 즉 장소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의 기억은 장소에 구속되며 다른 세계와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부여한 주체의 주관성은 장소에 구속되어 자신을 발견할 때 발생하는 개념에 가깝다. 개인의 주관성은 인식된 기억을 통해 장소에 구속된다는 것이다(제프 말파스 2014, 228-229).

이 경우 개인이 가진 장소에 대한 주관적 기억은 곧 장소성을 부여하는데 충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동체에 의해 합의되어 정해진 기억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기억은 자신의 정체성과 떨어질 수 없다. 곧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자기인식 맥락 내에서만 주관적 장소기억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장소에 대한 장소성을 인식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맥락 속에서 저장된 장소기억을 확보해야 한다. 장소를 중심으로 얻어내는 개인의 장소기억은 장소성에 대한 전체적 모자이크를 완성하는데 의의를 가지지만, 이는 장소기억의 저장주체인 개인을 기계적인 시선

으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생애에서 장소기억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 모습이나 단순사건 등으로 집중되기 쉽다. 이는 개인의 생애서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사적 맥락에서 장소기억을 해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림 1〉 장소와 개인의 사건 및 생애와의 관계



산업유산과 같은 하나의 장소는 복수의 장소기억을 저장하며 장소성을 획득한다. 다양한 개인의 장소기억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집단기억 역시 장소기억으로 존재할 수 있다. 장소기억은 주로 사건의 형태로 기억되며, 사건은 다시 개인의 생애서사 구성 단위가 된다. 생애서사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이며 사건의 인과적 연결과 해석을 통해 하나의 서사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서사 속의 사건은 맥락 내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로 분리하여 해석할 경우 당사자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이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장소기억의 단위로 개인이 경험한 사건은 개인의 전체적인 생애서사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산업유산에서의 장소기억은 노동이라는 보편적 주제로 범주화할 수 있는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 사건은 개인의 삶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로서의 개

인은 산업현장과 떨어져 존재하기 어렵다.

생애서사의 주체인 개인은 그 정체성의 토대를 장소에 기반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역할의 기반은 장소이기 때문에 정체성은 장소에 종속되어 있으며, 개별적이기보다 집단적으로 부여받고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한정훈 2016, 234). 이는 개인의 삶 중심으로 이해하는 장소기억이 사회적 의미와 맥락과 배치되지 않게 재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국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서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정 공장이 국가 기반산업의 변화나 한 지역에 대한 개발과 낙후를 대표한다 해도 평범한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사건으로 이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을 배제한 채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방지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3. 개인 서사기반 산업유산 아카이빙 방안

1) 장소의 구조를 반영한 경계설정과 아카이빙 실행

산업유산은 하나의 장소로서 의미구조를 가진다. 개인이나 사회가 보유한 장소기억은 산업유산이라는 장소에 저장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유산을 의미있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유산에 대한 장소기억 수집이 필요하다. 장소기억 수집은 산업유산이 개인과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어떠한 의미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유산은 건축물이라는 물리적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지만 공간의 경계는 의미를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독해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물리적이고 행정적인 단위로 경계를 만들기 어렵다(앙리 르페브르 2011, 229). 가령 노동과 관련한 출·퇴근, 산업활동에 연

결된 주변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간을 기초로 한 장소는 개인이 세계를 경험하는 의미의 중심이자 경험되는 현상이나 의미, 활동으로 채워져 있다(에드워드 켈프 2005, 287-288).

산업유산이 사회적 공간의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 의미있는 장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건물의 외피로만 해석되어 아카이빙 대상이 되는 공간의 장소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유산의 장소성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구조 관련된 사건을 토대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장소와 인간은 상호간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하면서 때로 불쾌할 수 있을 만큼 삶과 연결되어 있다(에드워드 켈프 2005, 288). 장소와 인간의 연결은 하나의 장소에 다층적으로 다양한 사람의 기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최아름 2018, 25). 장소성은 개인이 느끼는 개인의 장소성과 사회가 느끼는 집합적인 성격의 사회적 장소성이 존재한다(김동현 2016, 337). 개인은 장소에 대해 개인의 생애사서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기억이 주관적으로 존재하며,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 장소성이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 사회적 기억을 장소성을 생성한다.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본 연구는 산업유산의 장소성 아카이빙을 舊 청주 연초제조창과 안동역에 대한 편찬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아카이빙 대상으로서 안동역의 개괄은 일제시기인 1930년 영업을 시작하여 1940년 보통역으로 개발되어 중앙선 모든 열차가 정차하는 지위를 가진 9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산업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안동지역은 안동역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고,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에 안동의 젊은 이들을 징집하여 만주로 수송하는데 안동역을 활용하기도 하였다(정운호 2015, 35). 안동역은 경상북도 지역 일제시기 근대화의 시작이자 수탈과 징병의 중심지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1942년에는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안동을 거쳐 경주까지 연결되는 중앙선이 완전개통하였는데, 이러한 연결은 빈농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진 채 계속해서 안동을 떠나도록 만들었다. 이후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안동역을 낙동강 방어선의 중심지로 만들

있으며, 1967년에 만들어진 경상섬유공장은 안동역을 안동을 산업중심지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정윤희 2015, 52).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산업중심지로 서의 안동은 안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7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안동역은 안동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바라보던 관문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1970년 기준 연간 273만명이 이용하던 안동역은 중앙선 선로의 변경으로 2023년 영업중단을 예고했다.

1999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급격히 쇠퇴중인 안동기차역은 고속버스터미널에 비해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15). 쇠락 과정에서 안동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안동역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며 연령대와 삶의 궤적에 따라 다양한 기억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스펙트럼은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구술 등을 이용한 생애서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구술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이야기들은 공공적 자료(public document)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개인의 삶과 공공 사건과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Hamilton and Shopes, eds., 2008: 105, 윤택림 2020, 39 재인용).

〈표 1〉 안동역의 장소성과 관련한 사건들

공간	사건 내용	관련 기록
역 주변	전쟁에의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	구술, 기사, 사진
역 내·외부	역 근로자들의 노동과 사건	구술, 사진, 기차표, 실물
역에서부터 기차 안	무임승차와 도둑질	구술, 공문서
역 주변	역 주변 모습에 의해 경험한 사건	구술, 사진
역에서부터 기차 안	입영열차 탑승	구술, 사진, 기차표
역 내부/주변	기타 일상의 추억 등	구술, 사진, 실물

안동역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는 안동역 90년의 역사를 정리한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의 간행물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해당 간행물은 산업유산으로서

안동역의 역사를 기록화하는 방식으로 구술과 문학작품, 역사자료 등을 종합하여 발간되었으나, 본 연구는 수록된 구술을 이용해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다. 안동역과 관련한 사건들을 발굴하여 기록과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결시키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동역은 안동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층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통의 기억에서부터 역사(驛舍)노동자나, 운송노동자 등 자신의 위치로 인해 다른 기억들이 저장된 장소이다. 이는 안동역 아카이빙이 종합된 지역사(地域史)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개인이 가진 장소에 대한 애착과 의미를 포착해야 장소성이 표현될 수 있다(이남휘, 최창규 2011, 23). 또한 안동역 근무자이지만 기차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공간과 같이 장소성은 개인의 인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경계지어 접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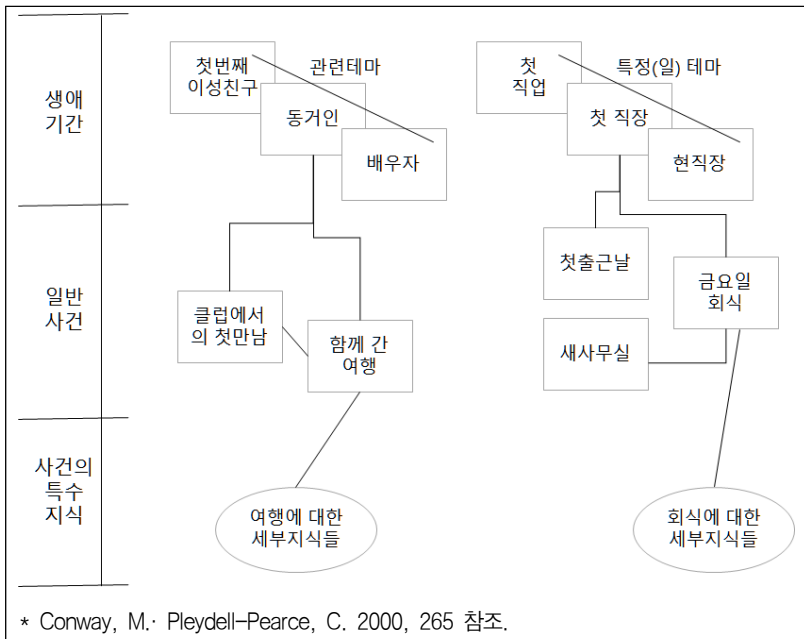
안동역과 같은 산업유산이 개인에게 장소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관련된 사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소와 관련되거나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없이 특정한 공간은 장소가 될 수 없다. 장소성을 구성하는 기억의 층위는 사건 중심의 방식으로 재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건은 다시 관련성을 중심으로 시기나 소재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안동역과 관련된 장소기억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6개의 범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기차역은 교통과 물류의 중심으로서 도시개발의 축이 되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반해 상주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러한 특성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개인의 기억을 얻는데 상당한 제한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른 사례인 청주 연초제조창은 직접적인 연초제조창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연초(煙草) 농사와 수매와 관련한 노동자 역시 상당했다.

청주 연초제조창은 안동역에 비해 공간의 경계가 더욱 분명하며, 노동자 수가 많은 만큼 노동의 장소기억이 많이 담겨있다. 지금은 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주 연초제조창은 1946년 11년에 전매청 소속으로 개칭하였다(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89). 이후 1963년부터 청주 연초제조창으로 확대되고 1987년 한국담배인삼공사 직할로 개편되었다(향토문화전자대전, 청주연초제조창). 이후 2004년 폐쇄된 이후 2018년 현대미술관으로 재개관하였다.

〈그림 2〉 자전적 기억의 위계 형태 예시



이들 산업유산에 담긴 장소기억은 공동체의 집단기억 외에도 개인의 생애서사를 구성하는 개별 일반사건기억이 주요 구성단위가 된다. 이들 개별 일반사건기억은 사건에 대해 개인이 설명한 내용 자체를 의미하기보다 개인의 자전적 기억이라는 일정한 형태와 구조 속에 저장되고 인출된다. 일

반사건은 다시 세부적 배경에 대해 특수지식과 같은 추가적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위한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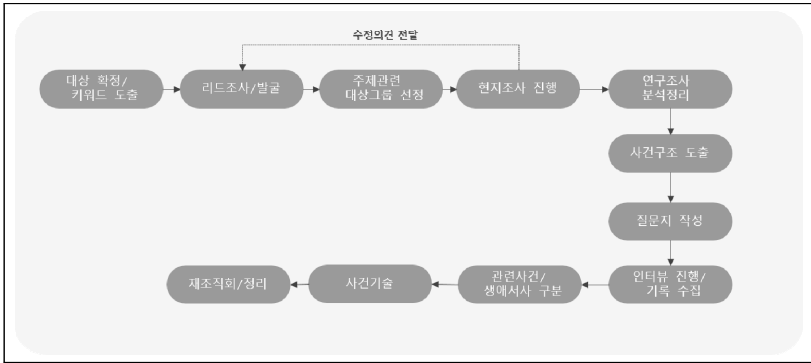
개인은 특정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건은 생애 기간 전체와 그에 대한 특수지식이라는 위계 속에서 기억한다. 개인의 자전적 기억은 개별적인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회상을 통해 기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스스로가 가진 특수한 위계와 체계 속에 있는 기억을 종합하여 재구성하는 인지작용이 필요하게 된다(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20).

개인의 생애서사를 구성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대상을 아카이빙 하는 방식은 기존의 지역 아카이빙 방식과는 접근방식을 달리한다. 기존의 지역 아카이빙 방법론은 대상과 연관된 문화, 장소, 생활, 인물, 역사 등으로 구분하여 객관성과 보편성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김화경 2012, 150). 개인 생애서사 기반 수집은 이러한 보편적 접근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는데, 보편적 접근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대한 주관성과 감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서사 기반 수집은 수집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된 구조의 일반사건 발굴이 요구된다. 대상과 관련한 사회적 사건이나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카이빙 대상에 대한 역사와 주요사건, 경관의 변화 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개인의 일반사건을 수집하는데 있어 접근점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대상과 관련한 개인의 일반사건은 개인의 서사적 자아를 토대로 종합한 인과적 생애서사 내에서 파악해야 자신의 주관성과 감정을 충분히 담을 수 있다. 따라서 서사적 맥락을 위해 인물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역시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기억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아카이빙 대상의 외관상의 변화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 의미 등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는 아카이빙 과정에서 장소성이 피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림 3〉 개인서사 기반 아카이빙 절차



개인서사 기반 아카이빙은 대상에 대한 유일하고 지배적 아카이빙 방법론으로 사용하기에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경관과 역사 중심의 아카이빙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절차의 시작인 대상 확정 / 키워드 도출 단계와 리드조사 / 발굴 등 초기단계는 공유하여 효율을 높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개인서사 기반 아카이빙의 초기 절차 과정은 주제 관련 대상그룹을 선정하고 현지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리드조사 / 발굴 단계를 다시 거치게 될 수 있다.

이후 연구조사 분석정리를 거쳐 사건구조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전단계에서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관련된 주요 사건이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사회적인 사건일 수도 있지만 대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의 출근과 퇴근, 식사, 노동환경, 주변 여건 등 다양한 일상을 종합하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스펙트럼을 가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질문지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인터뷰이(interviewee)는 산업유산에 근무하던 노동자 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 주변상인과 거주민, 학생, 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될 수 있다. 인물은 특별한 사건

과 관련되기보다 산업유산 자체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일상을 드러낼 수 있는 미시적 사건도 하나의 일반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어서 각각의 인터뷰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필요 시 반복하게 된다. 해당 과정에서 산업유산의 외형에 대한 표현 위주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자신의 생애와 연관된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인터뷰 과정에서는 녹음이나 촬영 등 텍스트 이외의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 결과는 다시 사건과 생애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조직화하는 최종 작업을 거치게 된다.

생애서사 중심의 아카이빙은 이후 단계에서 개인의 생애 위주의 인터뷰를 사건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의 생애는 서사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사건의 연속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건에 포함되는 인물이나 특정정보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후 사건의 자기완결성을 부여하여 내용적 전달이 가능하도록 기술(description)을 추가하는 형태로 생애서사에서 사건을 추출하게 된다. 개인의 기록 역시 사건에 종속된 형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반대로 사건은 기록의 맥락을 설명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출된 사건은 개인의 생애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지와 더불어 각각의 아카이빙 대상인 산업유산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산업유산의 장소성을 주관성에 기반하여 재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개인의 기억에서 인출한 사건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2) 개인 생애서사와 장소성의 연결

개인의 생애서사는 개인의 자전적 기억 형태로 재해석되어 저장된다. 생애서사는 사건의 연속이 인과적으로 배치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개별적 일반 사건은 개인의 종합적 인지작용을 거쳐 인출된다. 따라서 개인의 생애에서 하나의 일반사건은 스스로의 해석과 태도가 포함되어 표현된다. 뿐

만 아니라 자전적 기억의 구조 특성상 세부지식이 포함되어야 타인의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 형태를 가진다. 생애서사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일반사건을 완결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회상에 의한 기억에 추가적인 정보를 인위적으로 보충해줄 필요가 있다. 인터뷰이(interviewee)에 대한 기본정보와 생애 전반에 걸친 태도 정보 등을 포함하여 시간순서를 준용하여 자기완결적 형태로 보완하는 재정리가 필요하다.

개인의 생애에서 일반사건은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보편인식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에 의한 사건의 해석과 설명이 오히려 장소성의 구조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제프 말파스 2014, 51).

안동역의 경우 전쟁이나 노동과 관련한 사건, 자신의 일상과 기차 탑승과 관련한 사건 등이 장소기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쟁 당시를 경험했던 한 주민은 안동이 미군에 의해 불바다가 되는 혼란으로 인해 피난까지 이어진 상황을 구술하였다. 안동역은 안동시의 중심지였기에 폭격 대상지가 되었다. 안동역에 대한 해당 주민의 기억은 단순한 기차역이기보다 폭격과 피난이 연상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포함되어 있다.

안동역이 폭격을 당하고 그 후에 안동사람들, 인민군들이 여기 들어 오니까 들어오기 전에 미군들이 안동에 비행기로 기름을 짹~ 뿌려 안동을 다 태워부렸어요. 인민군들이 살 수 없도록 시가지를 태워부렸어요. 피난 마지막날, 가기 전날 안동 시내 온 불바다가 다 됐습니다.
(정○○, 1949년생, 전 안동시청 근무)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49).

또 다른 주민은 전쟁이 자신이 살던 장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안동역 주변이 전쟁상황에서 군사적 중심지가 되어 자신들의

고장이 폐허가 된 과정을 녹여내고 있다. 한국 전쟁사의 일부로 정리된 안동교 폭파 이후의 상황은 실제 삶에서는 개인의 삶의 피해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가진 안동역에 대한 기억은 전쟁의 참상과 고통이 포함 되어 있다. 이후 안동역의 열차 재운행은 폐허의 복구라는 의미로 이해되 기도 했다. 전쟁을 겪은 이들에게 안동역은 폐허 그 자체로 인식되었으며 자신이 가진 빈곤에 대한 기억이 극대화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안동역 의 장소성은 자신의 빈곤과 타인의 빈곤을 마주하며 그 안에서도 삶을 이 어가려는 의지를 발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안동역 은 빈곤을 마주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폐허를 극복한 기억을 마주하는 공간 이기도 하였다.

그니까 무인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전통, 지금 현재 그 건너편 안동초등학교에서부터 맘모스 제과점 있는 일대는 나중에 저 전부가 깡통을 깨고 펴서, 그걸 함석이죠, 그걸 맞이어서 함석공이 그런걸 이 어가지고 지붕을 하고. 그래서 하꼬방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고, 그런 집을 임시로 짓고 역전 부근이 사람 사는 꼴을 갖추는 그런 정도로 시 내 전란 후 피해가 컸어요.(이○○, 1942년생, 전 안동문화원 근무)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51).

전쟁 끝나고 기차역 초창기에는 기관고 근처에서 녀마주이들이 생 활을 했다. 움막을 쳐놓고 집단생활을 했다. 아이들이 울면 녀마주이들 이 큰 망태에 집어넣어 간다고 달랬다. 먹고살기 힘든 때니까 그런 사 람이 많았다. 역 기관고 뒤쪽과 법흥교 다리 밑에 움막을 치고 사는 사 람도 있었다(김우년 1958년생).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118).

안동역은 안동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의 일상에도 의미있는 장소성을 가 지지만 노동공간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이들의 노동공간 경계는 물리적인

대상의 안동역이기보다 기관으로서 안동역이 관할하는 모든 공간이었다. 기차는 철도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철도역이 관할하는 기차길 역시 노동자의 일터이며, 철도역은 기차길을 대표하는 장소가 된다. 안동역에 소속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기차를 운행하는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있으며, 자신의 사건들을 기록화하여 감정을 남기고 싶어했다. 기차가 다니기 위해 주기적으로 보수하는 작업이나 안전을 위해 서서 운행했던 기억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남기기 위한 사건들이다. 안동역은 이들에게 자부심의 대상이며, 기차길을 포함한 역은 자신들의 노동을 응축시킨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이들에게는 안동역이 언제 운영을 시작하고 확장되었는지보다 자신들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억이 더욱 중요했다. 개인이 가진 사건에 대한 주관적 기억은 서사가 집단화되면서 생략되거나 축약된다. 안동역의 폐지는 자신들의 기억의 장소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침목 밑에 다가 곡괭이로 자갈 찍으러 가지고 그렇게 단단히 해야 그래 차가 다니는 거예요. 그게 보수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니까 선로반 하나가 8km 정도씩 가지고 있거든요. 차는 계속해서 수십 번씩 다니니까 항상 그게 변형이 와요. 변형 오는 것을 바로 잡는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류○○, 1940년생, 전 보선사무소 근무)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66).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규정에 졸음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느 역에 오면 창문을 열어야 되고, 특히 안동역에 오면 얼마나 웃길게 있냐하면요, (중략) ‘서서 운행 구간’이 있어요.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졸까봐. 계속 앉아 있어야 하니 사람인데 안 졸겠어? 그래서 안동역에서 이하역까지는 서서 운행,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은 없고, 여러 가지 안전보완장치가 되어 있지(유○○, 남, 1973년생)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98).

철도역인 안동역은 보통의 중소도시와 같이 도시개발의 중심이었다. 또한 전형적 산업유산으로 노동에 관한 기억이 장소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이한 부분은 주민들은 영주역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영주역의 발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는 점이었다. 개별적인 기억은 안동역이 전쟁, 폐허와 복구, 노동에서부터 무임승차나 입영열차와 관련하여 누구나 있을 법한 기차에 대한 기억이 안동역을 통해 상기됨을 알 수 있었다(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안동역은 집단의 거대서사 뿐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주관적 기억들이 장소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로 연결하기도 했다. 개개인이 가진 기억이 종합되어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재구성될 때 의미와 감정은 상실될 수 있으며, 장소성을 보전한다는 목적에 오히려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례인 청주 연초제조창이 있던 충청북도 지역은 담배농사, 원료생산공장, 연초제조 등 다양한 전국 담배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담배산업은 전체 고용과 경제에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충청북도 지역, 특히 충북대학교가 있던 청주에 살던 주민들은 담배에 대해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연초제조창은 이러한 감정과 자부심의 매개가 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이자 산업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산업유산은 해당 산업유산과 연결된 산업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 연초제조창은 가령 담배농사와 관련된 기억과도 관련되어 있다.

연초제조창은 우연히 담배업계로 진입한 노동자들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 가령 자신이 살던 고향에 생긴 연초학과에 진학하면서 연초산업에 종사하게 된 개인의 기억에서부터, 자신과 일하던 담배농사 종사자와의 추억들이 연초제조창을 통해 상기됨을 확인할 수 있는 구슬도 찾아볼 수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미술관으로 개조된 연초제조창은 자신이 종사한 산업의 성취를 상징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담임선생님이 충북대학교에 연초학과가 신설
이 작년에 충북대학교에 새로 생겼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사실 전매청
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전반적인 거를 수출을 좌우했기 때문에 말
하자면 뭐 시골출신들이 거기 나오면, 높은, 고수입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연초과를 나오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나오면 거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셔서…
(윤원직 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56)

우리는 농사짓는 사람들과 가족과 같았지요. 보통 농사지원을 하라
고 자전거를 내어주었어요. 시골에서 농촌 지도를 하러가면 첫 인사가…
막걸리 한잔하지요.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때만해도 안주가
어디있어요. 안주 없어요. 그냥 머 (윤원직 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59)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일터로서 연초제조창이 의미
를 지남을 알 수 있었다. 연초제조창은 자신이 가족의 부양을 지탱할 수 있
는 일터이자 자부심의 원천으로 존재했다. 자신이 수납장으로 일하던 시절
이 연초제조창을 통해 떠올릴 수 있으며 반대로 역할을 다한 지금의 모습
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담배산업의 발전사로 연초제조창을 설명한다면 드
러나기 힘든 부분이다.

자신의 노동공간으로 인식하며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 역시 연초제조
창에 저장되어 있다. 산업유산으로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기억은 장소성
의 핵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로 드러나게 되며, 담배생산 노동은 담배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
으로 이어진다.

여그서 수납할 적에는 내가 수납장이라서 한 10년간을 넘게 다녔어.

근데 그케 청주 제조창이 사라지니까 서운하더라구요. 아이 그럼유 수납하러 담배. 담배 바치러 거가서 청주 제조창 있으면 참 좋았죠. 여그서 수납을 했었지 그전에 그랬는데, 한일연초 되고서는 청주로 가서 수납을 했지 그래서 여그서 수납할 적에는 내가 수납장이라서 한 10년간을 넘게 다녔어. 그럼 수납장 월급은 툭툭해요(박수복 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112)

실제로 과거 가족이 담배산업에 종사하는 현상에 대해 전매가족이라고 칭할만큼 자부심을 보이는 인터뷰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만든 담배에 대한 자부심은 학교선생님에게 선물로 줄 만큼 높았다. 연초제조창 노동자들에게 장소기억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생산한 담배와 관련한 사건으로 확장된다. 산업유산 아카이빙 과정에서는 물리적 공간의 경계 밖의 개별 기억들이 장소성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졸업 맞고 우리는 그러니까 전매 가족 이에요 형부도 다니셨고 또 오빠도 다녔고 그러는 바람에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 온 건데 초등학교 다닐 때 형부가 제조창(에 계셨는데). 옛날에는 월급도 담배 한 보루로 주고 막 그랬잖아. 화랑담배 뭐 그런 거 줬는데 그걸 인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니까 거기로 보내요. 언니가. 그러면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맘에 들었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선생님 담배 좀 갖다주게 싸달라고 그러면 세곽도 싸주고 다섯곽도 싸주고 그랬어 그러면은.(유순형 님)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136)

개인이 경험한 사건은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가지며, 장소와 관련된 사건기억은 자신의 정체성과 깊은 관계를 지닌다. 동시에 개인의 기억은 역사적인 시간을 포함한 장소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기억과 역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배운호 2015, 5). 장소성에는 개

인의 경험과 역사성이 혼재되어 있으며, 다시 개인의 경험은 주관성에 근거하여 장소의 물리적 경계로 한정되지 않는다. 연상과 상징작용은 자신의 생애 서사에서 중요한 사건에 장소성을 확대해서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관점의 거대서사뿐만 장소기억을 발굴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에서 안동역과 청주 연초제조창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산업유산으로써 노동이라는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 장소성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안동역은 청주 연초제조창과 달리 노동을 넘어 역사적 사건과 이를 받아들이는 개별적인 경험의 중심지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으로 철도라는 운송수단이 지역을 살아가는 개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기에 더 쉽기 때문에 추측된다. 이러한 차이는 산업유산 아카이빙의 전략설정과 실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

산업유산은 국가적인 의미로 독해되어 거대서사를 중심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 중요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장소기억에 집중하기보다 문화적 결합을 통해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물리적이고 예술적 이미지를 덧입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시도가 주를 이루었다. 장소성은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간주되었다.

본 논문은 산업유산에서 장소성을 구성하고 있는 장소기억을 아카이빙하는 구조적 접근에 대해 연구하였다. 산업유산이 물리적 변화를 통해 지역에 재정착하는 과정에서도 장소성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역과 충분히 결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

기존 산업유산이 도시재생활동과 결합하는 경우 원래의 산업 용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장소성을 활용하였다. 또한 장소성을 구성하

는 장소기억에 대한 설명은 공간과 분리되어 건조한 텍스트로 표현되어 장소가 가지는 아우라의 감정은 개인의 적극적인 탐색이 요구되었다. '무엇을 하던 곳'이었으며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이 장소성을 설명하는 큰 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산업유산을 경험한 개개인들의 장소기억은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며 주관적 인식에 근거한 감정과도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기억은 주관성에 기반하지만 역사적 장소성과 상호작용하며 장소가 갖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안내문 속의 장소기억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생애기억이 가진 장소기억은 장소성을 다양한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산업유산이 가진 장소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소에 대한 아카이빙 방법론이 구축되어야 한다. 기존의 아카이빙 방법론은 대체로 물리적 공간과 건축소재 등에 집중하거나 해당 산업이나 조직의 변천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식에 추가적으로 개인의 생애서사에 존재하는 장소기억을 사진 형태로 추출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생애서사 기반의 아카이빙 방식은 개개인의 생애서사라는 매력적인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건기억을 토대로 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산업유산이 가진 장소성을 개인의 일상적 삶으로 확대하였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거대한 산업유산의 장소성이 국가적이고 산업적으로만 표현되는 것과 개인의 일상적 사건기억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전적 기억의 구조를 토대로 사건기억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다원적 아카이브 구축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산업유산이라는 대상 자체보다 대상과 관계된 요소들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빙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산업유산의 물리적 공간에 의한 경계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연상되는 대

상까지 확장하여 더 넓게 장소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삶에 근거하여 아카이빙된 서사는 주관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경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생애 서사에서 ‘관계를 통해 부여된 의미’는 개인이 소외되지 않는 새로운 수집 방법론으로서 가능성을 찾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수집 전략은 대상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에서 출발하며 대상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각을 제시하여 다양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구체적인 기록과 구술에 대한 관리방안이나 활용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구술이라는 서사의 담론은 구조적으로 이해되고 활용되면서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없다면 필요한 형태로 적절히 제공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을 대상으로 생애서사를 사건으로 구분하여 이를 장소기억으로 해석하여 수집하는 일종의 시론적 연구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장소와 서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집방법론과 관리 및 활용방법론에 대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동진, 장주은. 2011. 철도교통 관련 산업유산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법론.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1), 105-126.
- 김동현. 2016. 공간 인식의 로컬리티와 서사적 재현양상 -『화산도』와 『지상에 순가락 하나』를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53, 333-366.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역할. 『기록학연구』, 42, 3-35.
- 김영경, 진영선, 이장호. 2009. 노화와 자전적 기억 - 회상유형과 사상유형에 따른 일화 및 비일화 기억 양상 간 비교.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2(3), 19-32.
- 김정현. 2011. 철도역 사진기록화를 위한 영역설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125-174.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박재민, 성종상. 2012.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65-82.
- 박재민. 2013. 장소기억으로 해석한 근대 산업경관 : 근대 산업도시 장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윤희. 2015. 근대공간의 장소성과 기억에 관한 연구 - (서울역), (운양민속 박물관),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예술문화융합연구』, 1(2), 57-99.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염미경. 2010. 근대 산업유산의 활용과 지역활성화 :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2(1), 159-182.
- 윤택림. 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1(1), 9-45.
- 윤현위, 문순희. 2020. 유희 산업시설의 산업 유산화를 위한 조건들 : 동일방직 인천공장 사례로 -. 『인천학연구』, 32, 117-159.
- 이남휘, 최창규. 2011. 장소성 형성의 인과구조 실증적 분석 - 서울 홍대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계획』, 46(3), 19-36.
- 정유진. 2018. 장소기억과 기억 그리고 로컬리티 : 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재현을 중심으로.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2018년도 춘계 공동학술대회』, 99-121.
- 정윤희. 2015. 협력과 저항의 경계, 안동역. 『안동학』, 14, 28-60.
- 조은영. 2016. 도시의 기억을 어떻게 보존할까? - 서울미래유산 사업의 사례연구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9(2), 31-51.
- 진종현. 2012. 산업유산과 지역발전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연구 : 태백시 철암지역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6(3), 287-299.
- 최아름. 2018. 장소기억 회복을 위한 '빈집' 기반 에코뮤지엄 전시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 하승용, 이정수. 2017.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의 사진기록방법 개선방안 -대전지역 기록화 조사보고서 기록화사진을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8(4), 443-456.
- 하승용. 2019. 도시경관 기록화사업 체계 및 기록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정훈. 2016. 정체성 구성과 장소성 형성에 대한 연구 : 반가 여성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구비문학연구』, 43, 231-272.

- Conway, M., Pleydell-Pearce, C., 2000. The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the self-memory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07(2), 261-288.
- 경북기록문화연구원, 안동민속박물관. 2020. 『안동역 90년의 역사 그곳에 역이 있었네』. 예인.
- 앙리 르페브르 지, 양영란 역. 2011.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지,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 제프 말파스 지, 김지혜 역. 2014.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 2016. 『충북여성생애구술사 - 연초 산업과 여성의 삶』.
- 태지호. 2014. 『기억문화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